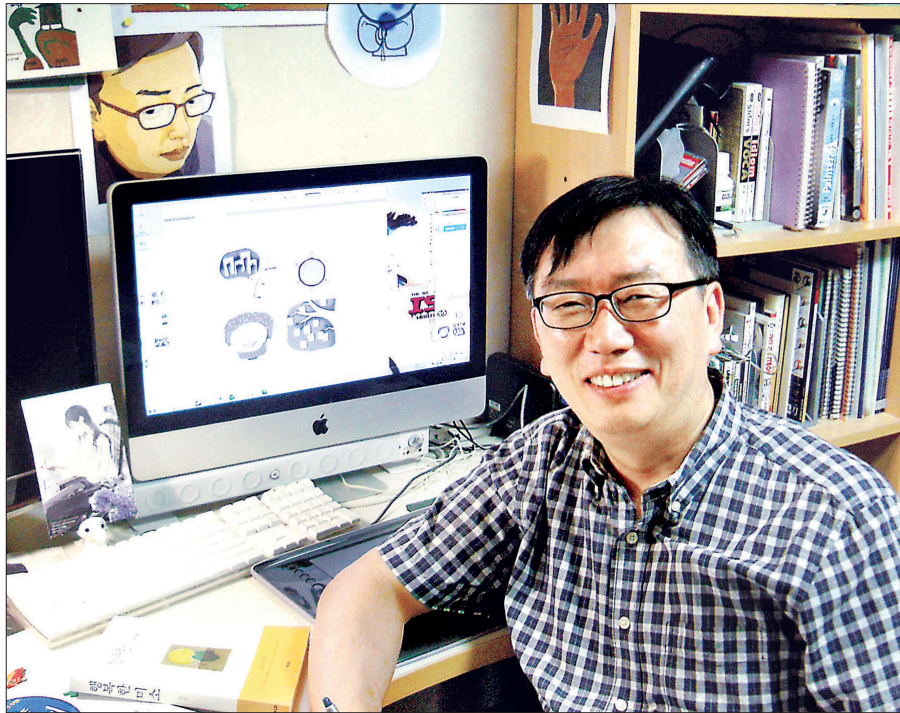


'길을 묻는...' 읽으며 그림 그리면 치유가 되죠

최주현 '길을 묻는 이에게' 화백



주 범문의 주제가 달라지니까 그 주제의 포인트를 잘 잡아서 최대한 단순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최주현 화백의 작품 특징은 인물의 얼굴이 모두 작다는 것이다. 최 화백은 “모텔이 패션쇼 런웨이에서 웃으면 웃은 보이지 않고 얼굴에만 시선이 가게 된다. 그래서 나도 될 수 있는 한 얼굴을 부각시키지 않고 그림의 행위 자체나 몸짓, 배경으로 범문을 표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인간의 잠재의식과 내면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최주현 화백은 대행 스님의 범문을 읽으며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없이 좋은 수행이라고 말한다.

“글을 읽으면 가끔 힘들고 지쳐있던 제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걸 느껴요. 또 가끔은 대행 스님의 아름다운 범문을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잠자리채로 구름을 잡는 것처럼 어려울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껴요.”

‘현대불교’의 ‘길을 묻는 이에게’와 앞으로도 인연을 이어가겠다는 최주현 화백은 독자들에게 자신의 그림을 편하게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대로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그림이 이걸 뜻하는구나’라는 식의 정답은 없어요. 그냥 각자 느끼신 대로 그림을 봐주고 ‘씨익’ 한번 웃는다면 그만큼 저에게 기쁘고 보람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나는기자

“이제는 ‘길을 묻는 이에게’ 삽화를 그려야지만 일주일째 제대로 마무리 한 느낌이 들어요.”

최주현 화백(55)은 1997년 10월 8일 ‘길을 묻는 이에게’가 전면 2페이지로 확대되면서부터 현재까지 ‘현대불교’와 인연을 맺고 1500여 점이 넘는 삽화를 그려왔다.

불교계에서 일하는 지인의 소개로 시작된 ‘길을 묻는 이에게’ 삽화 작업은 최 화백에게는 삶의 일부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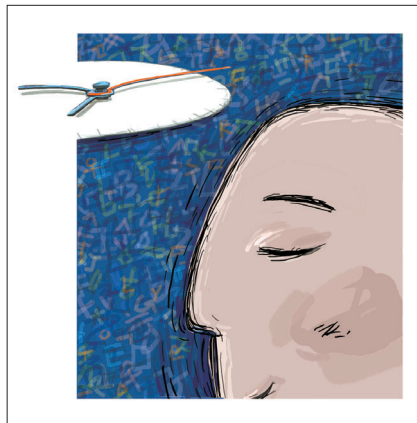
모친이 불교여서 불교와는 친숙했지만, 처음 대행 스님의 범문을 접했을 때는 적잖은 고충을 겪기도 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범문을 읽었을 때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막막했어요. 제가 범문을 제대로 이해해서 함축적으로 잘 전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있었죠.”

‘길을 묻는 이에게’에 실리는 대행 스님 범문은 불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 화백은 이에 착안점을 두고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도록 삽화를 그려나갔다. 일반인들도 삽화를

보고 그 안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대행 스님의 범문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들이 많더군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좋았어요. 또 개인의 성향과 고민에 맞게 조언을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아 정말 큰 스님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



1000호를 기념해 최주현 삽화가가 보내온 그림들. 왼쪽 그림은 오랫동안 ‘길을 묻는 이에게’ 삽화를 연재해온 작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오른쪽 그림은 자유롭게 여러 가지를 표현한 것으로, 최 화백은 “실명을 듣기보다 각자 개인이 그림을 보며 느낌을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주 쉽게 알려줘

재소자들의 편지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사회에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기 위해 군부대,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현대불교’ 범보시에 6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1290여 곳에 ‘현대불교’가 전달되고 있다. 교도소 및 교정교화 기관에는 425부가 발송되는데, 재소자들에게 ‘현대불교’는 어둠속에 새어나오는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다.

재소자들은 ‘현대불교’의 ‘길을 묻는 이에게’를 읽고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현대불교’ 보내오는 편지를 통해 “스님의 범문을 읽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고 밝아진다”고 한다. 또 때로는 가슴이 저리면서 눈물이 난다고 한다.

황수경 불교여성개발원 명상리더십 센터장은 “재소자들이 애독하는 이유는 인

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대행 스님이 아주 쉽게 가르쳐주기 때문일 것”이라며 “스님의 범문은 직접 고행을 겪으며 실천한 것이기에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열게 하고 자비심이 피어나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수경 센터장은 “아마도 대행 스님은 대중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그 자신보다 더 아파하는 자비심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자비롭게 무엇이나 받아주는 엄마 같은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재소자들이 보내온 편지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이나는기자

“비록 늦게 알아차린 잘못이지만 이제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인원에 비해 현대불교신문 수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대불교 신문을 편하게 매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대구교도소

“제가 이번에 심사에 합격해서 퇴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훌륭한 기사와 좋은 내용의 현대불교신문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서 글을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을 2년간 읽으면서 불교의 지식이 한층 깊어졌고 특히 대행 스님의 ‘길을 묻는 이에게’를 읽으면서 불교수행의 길을 찾은 것이 제겐 큰 행복이었습니다. 2년 동안 신문물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나가서 새사람이 되어 불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충남 공주치료감호소

“신문에 게재된 스님들의 말씀을 읽고 제가 살아온 것이 너무 허망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저에게 희망을 안겨준 현대불교신문을 꼭 보내주세요.”

여주교도소



범보시를 통해 현대불교신문을 받아본 재소자들이 본사로 보내온 감사편지들. 이들에게 ‘현대불교’와 ‘길을 묻는 이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

한인성도교자교육과정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 승려연수 교육과정

교육기간
2014년 9월 20일(토)~10월 18일(토)

일시장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5시, 한마음선원

신청지역
인성교육에 관심있는 스님

신청방법
한마음선원(www.hanmaum.org) 방문 ▶
수속 상담의 '한마음가족'메뉴 ▶ 카페 검색 ▶
'한니무인성교육지도자과정' 검색

문의사항
Tel. 031-470-3200, 3196 *매주 월요일 휴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니무인성교육지도자과정 카페'에서 확인

한나무인성교육과정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승려연수 교육과정

- 2007년, EBS-TV 학습장애 극복프로그램에 한니무인성교육프로그램 적용
- 2010년, 학습 내 왕따 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수원 세류중학교)에 적용
- 경기도교육청 지정, '인성교육 특수분야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선정
- 대안학교, '아름다운 학교'의 마음공부프로젝트 진행
- 충남 금산 간디학교 필리핀 해외여름캠프에 한니무인성교육프로그램 운용
- 2012년, 전북 진안초등학교, '배려와 나눔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활용
- 경남 유어초등학교, '인성우수학교계획추진'에 한니무인성교육프로그램 적용
- 2013년, 경상남도 교육청 지정, '교사직무연수과정' 선정
- 2013년, 교육부 공익법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회로부터 학교부문 우수상 수상
-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청소년 심성개발프로그램으로 인증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으로부터 승려연수교육과정으로 지정

한마음과학원

한마음과학원(www.hansi.org)은 재단법인 한마음선원의 교육 및 연구기관으로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 아니라는 '한마음원리'를 다양한 분야에서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증명해 나가는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시작단계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자신과 서로에게 친숙해지기

1단계 / 숲을 보아, 나무를 보아
나에게 중심이 있음을 이해하고 내가 세상과 어우러져 사는 생명공동체의 일부임을 자각한다.

2단계 / 마음의 힘과 소동
비량직한 소동의 방식과 마음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내면의 무한한 힘을 자각한다.

3단계 / 변화하는 나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실천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킨다.

이후 단계 회향

현대불교신문 지령 10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